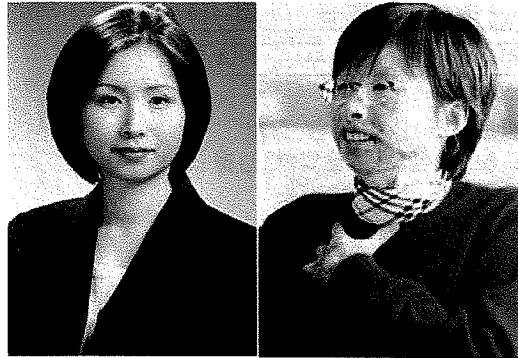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고도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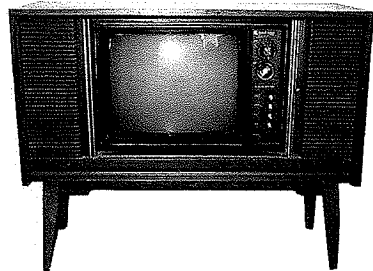
<이화여대 재학중 만취한 운전수가 몰던 차에 받쳐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지선 씨의 글입니다> -지선아 사랑해' 中에서-



저는 짧아진 여덟 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 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

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컷바퀴 덕분에 컷바퀴라는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백만분의 일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합니다 "네!...이러고도 삽니다.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땐 그랬지▶ 옛날 흑백 텔레비전 '여로' '아씨' "유쾌한 청백전" 웃으면 복이 와요 '이 모두 4개의 다리가 달린 흑백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눈물도 웃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내며 손으로 돌리는 채널에서 버튼식 채널로 바뀐 TV는 채널11 MBC가 있어 최소 버튼이 11개가 있어야 했던 원시적이었지만 그때만해도 첨단이었습니다. TV 케이스의 여달이식 문을 달으며 하루를 마감했던 그 시절의 하루는 흑백만큼이나 소박했었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4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10월 17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아흔 아홉 마리와 한 마리”

이현주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양 일백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둔 채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냉정한 이성을 소유한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한마리를 찾아나서다니요? 그 한마리를 찾으려다가 아흔 아홉 마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경영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목자는 머리가 들었군요 “

어느날 그가 아들 삼형제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고 다시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자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얼마 동안은 잃어버린 자식의 모습 말고는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아이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정한 아버라고 비난 받아도 어쩔 수 없어요 “

어느 날 그가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시나무 우거진 바위 벼랑에 매달려 그는 소리질렀습니다.

“당신은 아흔 아홉 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셨지요? 당장, 이리로 와 주십시오. 결코 중도에 서 포기하지 말아 주세요! 어리석은 목자, 무정한 아버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제발, 저를 버려지는 마십시오 “

◀ 믿음의 명상▶

가나안을 가려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수는 있다.
그러나 숨을 수는 없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5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2 (시 32)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17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광희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15:22-2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교 Sermon	하나님 이름의 능력(3) "여호와 라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91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월의 예배위원◆

◆10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주 일	예배와 모임
3	노은숙	한정옥	7구역	3	구역예배(8)
10	박일영	허미숙	8구역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17	이광희	최현철	9구역	17	식사천교주일 은 십자가성가대(학생부)
24	이규임	강은미	10구역	24	Labour Day(25)
31	이재영	권영희	11구역	31	이삭줍기주일

'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어머님 방문(한국)> 김봉희 집사, <어머님 방문(미국)> 이지영 집사
*병환으로 입원하신 어머님, 멀리 떨어져 살면서 보고 싶었던 딸의 모습을 보시는 것 만으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 오늘 성가대: "은 십자가성가대" <학생부>
*앞에서 찬양 할 때는 부끄러워 고개 못 들어도 자기들끼리만 굴러가는 쇠뿔을 보아도 뒤로 넘어가는 꽃봉오리 같은 세상을 가진 소년소녀들...생각만해도 맑아지는 마음입니다
- 오늘은 식사천교주일
*양념간장에 비벼먹는 콩나물 밥, 김치가 있어도 없어도 진수성찬 같은 자리입니다.
- 뉴질랜드장로교 소속교회 "장로교한인교회협의회" 주관 심령부흥회
*<일시> 10월 20일(수)-22일(금) 저녁 7:30 <장소> 오클랜드한인교회 <강사> 이종민 목사(시카고 Lake View 교회)
- 이번주 수요일예배는 연합 심령부흥회로 모입니다 <장소> 오클랜드 한인교회
*우리교회 수요일예배를 '연합부흥회'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교회 나무십자가 성가대와 임마누엘교회성가대의 연합성가대 찬양(수요일)
- 금요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6:00am>
*새소리를 들으며 깨는 나라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음성 들으며 인도함 받는 삶, 새벽제단에서 가족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름들입니다.

◀착한 시인들▶ 분꽃

권대웅

꽃 속에 방을 들이고
살았으면
지붕이랑 창문에는 꽃등을 걸어놓고
멀리서도 환했으면
꽃이 피면
스무 살 적 엄마랑 아버지랑 사는
저 환한 달 속을 다 보았으면
그 속에서 놀았으면
밤새 놀다가
그만 깜박 졸다 깨어나면
그렇게 까만 눈동자
아이 하나 생겼으면

이제는 관능적인 봄꽃들도 떨어진
꽃잎으로 제 몸 거두는 때입니다. 이
때 분꽃이란 이름은 신성한 이름으
로 들려졌습니다.
웬지 가늘고 긴 미인의 가녀린 다
리처럼 불쌍하게 보이던 진홍색의
분꽃.
이젠 스러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들
이 예사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꽃,
태풍, 별, 달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스
승입니다. 아름답게 살다가 말없이
떠나라고, 다음에 나타나는 자들을
위해 흔쾌히 자리를 내주라고 말없
는 가르침으로 일깨워 줍니다